

강기정 시장, 민주당에 민생예산 복원 등 건의

민주당 지방재정 파탄 긴급 대책회의 영상 참석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분 보전·지역화폐 국비 지원 등

강기정 시장은 27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분은 지방정부가 감당해야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른 부자감세로 발생한 세수 부족분까지 지방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지방재정 파탄 해결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

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방정부에서는 강기정 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등이 영상으로 참석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4778억 원 줄여든 상태에서 마무리했고, 내년 예산도 지방교부세 급감에 따라 전년보다 2019억 원 감소한 6조9083억 원으

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이는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감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지방재정 실상을 설명했다.

강 시장은 “오늘 회의는 민주당 5개 지자체장이 함께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떤 정책을 펼치더라’ 하는 모습을 5개 지자체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정책성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정책을 선정해 이를 5개 지자체 현장에서 적극 시행, 지방에서부터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 지방교부세 세수결손분 국가 보전, 청년·일차

리·사회적경제 등 민생예산 복원에 앞장서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내년 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지방채 발행이 아니라 국채 발행 등의 방안을 통해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라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지역화폐는 전액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책예산으로 국비를 확보해줘야 한다”며 “또 국가가 직접 지원해 온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유지지원금·지역주도형 일자리 등 청년 및 일자리 예산과 국비가 대거 삭감된 사회적경제 예산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일상 기자

광주 5개 자치구 여성친화도시 지정 올해 남구 추가 지정...마을단위 돌봄기반 등 호평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여성친화도시 지정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가 시·군·자치구 단위로 지정한다. 지정 기간은 5년이다.

광주는 2021년 동구·북구, 2022년 서구·광산구에 이어 올해 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5개 자치구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남구는 남구여성네트워크 구성 운영, 심시일반나눔마을학교·남구주민회의·놀아조·우리팔단지 등 마을공동체 단위의 돌봄기반 구축, 경력단절 여성 대상 멘토멘티

연계사업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펼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그 동안 여성이 살기 좋은 성평등 기회도시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성평등한 마을이 모여 성평등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2012년 여성친화마을을 조성하기 시작, 자치구·여성가족재단과 협업을 통해 올해까지 71개 성평등 마을을 발굴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 성평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부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간접노무비 지원 등 일과 생활의 균형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일상 기자

광주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전국 1위...2년 연속 최고

광주시는 감사원이 실시한 2023 자체감사활동 심사 평가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시는 감사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감사성과 우수 및 절차 준수, 감사결과 공개, 부패행위 사전예방 노력과 함께 시민불편 사항 해소, 감사 사례 전파, 자율적 내부통제 확충, 한전과 감사협력 구축 등 새로운 시책을 꾸준히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제3차 광주지역 국가 공공기관장 소통간담회 27일 오후 남구 광주김치타운에서 열린 '제3차 광주지역 주요 국가·공공기관장, 5개 자치구청장 소통간담회'에 강기정 시장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지사 “미래도시 이정표 순천...전남 중심지 도약 지원”

순천서 도민과의 대화 “정원박람회 성공” 등 축하

김영록 지사는 27일 순천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남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순천을 적극 지원해 전남 전체에 선순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으로 모두가 순천을 주목하고, 순천에 대규모 투자유치가 이뤄져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등 순천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노관규 순천시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정병희 순천시의회 의장, 김석은 순천소방서장, 순영진 순천대 기획처장 등 200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노 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순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지원에 힘써주고, 경전선 우회 문제, 한화에너지로스페이스 투자, 바이오 신산업 육성 등 타 지역의 반발 우려에도 불구하고 순천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준 전남도에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지사는 “순천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더해져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생태 수도’로 우뚝 서고 있다”며 “순천대의 글로벌대학 30선 정까지 모두 순천시민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순천시는 이날 재해위해도 C·D 등급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이 있는 승주읍 유평리 인근의 시설물 정비와 필요하며 재정지원 5억원을 요청하자, 김 지사는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조준희 기자

광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102억원 지급 5개 자치구 지급대상 농업인 1만60명 확정

광주시는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규모를 102억 원으로 확정하고, 자치구별로 지급계좌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달 중 순차적으로 농가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

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져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됐다.

시는 지난 2~5월 신청을 받아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 1만60명(5190ha·102억 원)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FAX: 062-362-0078

이메일: honamnews@hanmail.net